

제 5180호 2000년 11월 25일 창간

homae.co.kr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음력 5월 17일)

## 기아 광주공장 ‘차량 출하’ 하루하루가 전쟁

공장 내 차량포화…시청 야외 음악당 등 공간 확보 비상  
부품수급 원활 ‘하루 2000대 생산’…반출 가동과 직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일째 전면 무기한 총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기아 광주 오토랜드(광주공장)도 하루하루 차량  
출하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총파업 사태의 생김인 안전운임제  
는 과적이나 운전자의 과속, 과로 등  
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올 연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률제 법안이다.

작용 차량은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화물차로  
전체 화물차 41만대 가운데 6% 가  
량을 차지한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제도 도입  
효과가 큰 만큼 법안 종료 기한을 없  
애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14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사업장  
에 따르면 우려했던 화물연대 총파  
업 장기화 여파로 완성차 출하에 점  
차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완성차를 출하장과 목포항 수출  
컨테이너 부두로 운반하는 카 캐리  
어 운전원 대부분이 공공운수노조

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파업에 참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 광주사업장은 스포티지 · 셀  
토스 · 쏘울 · 봉고트럭 등 4개 차종  
을 하루 1900~2000여 대 생산 중이다.

하지만 완성차를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면 공장 내 차량 포화로 생산라  
인이 멈춰 서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다.

공장 생산라인이 멈춰 설 경우 1  
차 협력사 50여 곳과 수백여 곳에  
달하는 2·3·4차 협력사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  
제 전반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아 광주사업장은 카 캐리어 파  
업 사태가 발생하자 직원들을 동원  
해 직접 완성차를 공장과 가장 가까  
운 평동산단 내 출하장까지 12km 거  
리를 개별 운송해왔다.

그러나 평동산단 출하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자 오늘(14일)부터 광주  
시청 야외 음악당까지 임시 보관장  
소로 빌려 활용하고 있다.

이날 야외 음악당에 임시 보관한  
차량은 240여 대이며, 15일까지 400



광주시청 야외 음악당에 주차된 수출 차량

시 보관돼 있다.

여 대를 반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완성차 추가 보관을 위  
해 전남지역 지자체, 군부대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

14일 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 여파로 광주광역시청 야외  
음악당 주차장에 기아 광주사업장에서 출고된 완성차가 일

/뉴스

며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예  
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범 기자

##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고흥 외나로도 일대에 2031년까지 8082억 투입

우주특화산단 조성 등 7개 분야 21개 과제 추진

전남도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  
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제20대 대통  
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110개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 봉  
래면 외나로도 일대 28.4㎢에 오는  
2031년까지 8082억원을 투입해 ‘우  
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우주특화산단 조성  
과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우주

구와 산업 인프라 집착화를 통한 시  
너지 효과와 창출을 위해 한국항공우  
주연구원 발사체 본부도 유치할 예  
정이다.

또 민간기업의 우주발사체 개발  
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우주개발 핵  
심 인프라를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발사장 부지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7일 ‘우주개발진  
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  
면, 하반기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 중인 고체추  
진 민간 발사장은 설계 용역 중으로,  
오는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2025년부터 민간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  
스터가 조성되면 오는 2031년까지

10여 개의 발사체 기업을 유치한다  
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726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45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3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경남과 연계해 남해안  
남중권에 초광역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은 발사체 클러스터 산업, 경  
남은 위성과 소재 부품 산업 등을 집  
중육성해 국가차원의 우주산업 발  
전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주순선 전략산업국장은 “누리호  
발사 이후 전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고  
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발사체 엔터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국

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거점  
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 기자

누리호 발사 하루 순연 2면

민주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3면

내달부터 전기료 인상 4면

알림

본보 지역 주재 기자 모집

▶ 모집분야

여수시

호남매일

이번 조사는 1년 주기의 국가통계  
산출을 위해 설계된 표본으로, 월별  
조사 지역이 다르고 조사 규모도 적  
은 편이지만 대상자의 연령이 10세 이상  
인 만큼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

/뉴스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010-6265-0057